NEWS & NEWS

News & News

신년교례회 1월 5일 연다
치협 정기이사회 열고 현안문제 논의

2007년도 치협 신년교례회가 오는 1월 5일 금요일 6시 30분부터 치협회관에서 치과계 내부 인사만을 모시고 진행된다.

치협은 지난 11월 21일 치협 회관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2007년도에 열리는 신년교례회에서는 외부인사 초청을 자제하고 치과계 내부 인사만을 초청해 치과계가 더욱 단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년교례회를 열기 전에 지부장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이사회에 이어 상정된 보철학회의 회칙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교정학회의 회칙개정(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또 치료재료구입목록표와 관련 개원가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지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세미나리뷰 제재 조치 해제의 건을 논의하면서 그동안 회사 자체에서 자정노력을 해오고 있으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제재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히 연말정산과 관련된 성명서와 스케일링 관련 협회 입장 및 감염 실태조사와 관련된 현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면서 회원들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선거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 실시의 건은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News & News

정부 대학 평가 대비 "치평원 조속히 설립돼야"
범치과계 공동으로 협의·추진 필요

정부의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앞두고 치과계에도 자율적으로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치의학교육평가원(가칭)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치의학교육평가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관식)와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는 지난 11월 27일 서울대 치과병원 제1강의실에서 '치의학교육평가원(가칭)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관식 치의학교육평가원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는 고등교육 평가 전담기구로서 '한국고등교육평가원(가칭)'을 설립할 예정에 있어 치의학 교육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민간 기구를 먼저 구성해야만 고등교육평가원에 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설립이 늦어질 경우 자칫 자율적인 기구 구성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요구나 타율적인 기구 구성은 교육과정 평가의 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범 치과계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이후 대학교육협의회, 교육부, 언론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대학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전문분야의 특성에 알맞은 평가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서열화로 인해 개선보다는 이해집단간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전문분야별 평가기구는 전문직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자율규제를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치평원에서 담당 가능한 업무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인정 평가 ▲치과의사 면허 ▲치과의사전문의 면허 ▲치의학교육입문시험 ▲치의학 교육기관 지원 업무 ▲교육과정 개발 ▲교육관련 연수 및 훈련 등을 제시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이나 시의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교육과정 평가 및 교육과정 연구, 입문시험과 면허시험 등에 대한 연구 및 조사, 분석, 평가, 관련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치평원에 치과계 인사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각계 인사 및 학생 전공의대표 등을 참석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황성환 교육인적자원부 평가지원과 사무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치평원 설립에 대해 교육부에서 내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치평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관련 단체간의 업무 협조를 통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점차적으로 업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News & News

올해 환산지수 2.3% 인상
현행 60.7원서 62.1원으로… 건보료는 6.5% 올라 / 건정심 회의 최종 결정

올해 환산지수(의료수가)가 현행 60.7원에서 62.1원으로 전년대비 2.3% 인상되는데 그쳤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4.48%에서 4.77%로 0.29% 늘어 전년대비 6.5%가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도 점수당 단가가 131.4원에서 139.9원으로 8.5원 증가해 역시 전년대비 6.5% 인상키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2월 1일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2007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를 최종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보험료 인상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가 표결처리 강행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참석자들은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결정됐다.

이날 건정심은 가입자·공급자·정부 모두의 고통 분담을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6.5% 인상키로 의결했다.

환산지수 결정과 관련, 건정심은 의료행위의 원가 비용 변동 정도, 전년 대비 보험급여비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대비 2.3% 인상한 62.1원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예상분은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 ▲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노력과 2006년 말 1조7백억원의 누적 수지 중 일부를 활용해 충당키로 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서 논란이 됐던 '유형별 환산지수'와 관련, 건정심에서 유형 분류를 금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유형별 환산지수는 2008년 환산지수 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결정에 대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 급여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News & News

내년부터 '심화교육수련제(AGD)' 시범 실시
대학병원 치과·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치과 대상

치과의사 심화교육수련제도(AGD:Advanced General Dentistry)가 2007년도부터 대학병원 치과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치과에서 실시된다.

치협은 지난 12월 7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AGD 실행특별위원회가 상정한 2007년도 시범사업 실시(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AGD 조기 정착을 위해 2007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 검토 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시이사회 하루 전인 6일 개최된 AGD 실행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구)에서는 특히 그동안 통용된 GPD(General Practice Dentistry)란 용어를 AGD로 변경하기로 하고, 한글 용어로는 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라고 표현하기로 했다.

단 AGD는 향후 더 적합한 용어가 제시될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결의했다.

또 수련의들의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 및 병무청에 최고 3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AGD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간 인력수급의 불균형 및 전문과목별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 진료의 특성 및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잘 훈련된 치과의사 일반의 배출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세계적으로 졸업 후 교육이 강화되는 추세에 부응하고자 도입하게 됐다.